

감독 김윤석이 시나리오 면접서 발견한 보석

500여명 지원자 중 30여명 압축 감독이 일대일 심층 면담서 선발 김윤석 "자신만의 목소리가 중요"



영화 '미성년'의 두 주인공 김혜준(왼쪽)과 박세진. 배우 김윤석이 연출 데뷔작을 준비하면서 한 달간 진행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원석'이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이들은 향후 활동에도 기대를 갖게 한다.

시선을 붙잡는 두 명의 신인 연기자가 한국영화에 나란히 등장했다. 배우 김윤석의 연출 데뷔작인 '미성년'의 두 주인공 김혜준과 박세진이다. 장편 극영화 출연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탄탄한 실력을 드러내면서 향후 활약에도 기대를 갖게 한다.

1995년생인 김혜준과 1996년생 박세진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오디션을 통해 '미성년'(제작 영화사레드피터)의 주인공을 따냈다. 오디션은 신인 연기자가 영화에 참여하기까지 거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이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남달랐다.

'미성년'의 두 주인공을 오디션으로 뽑는다는 소식에 약 5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제작진은 이들에게 시나리오 일부분을 제공하고, 표현력을 시험하는 과정을 3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후 과정은 특별하다. 30여 명으로 후보가 압축됐을 때 김윤석은 시나리오 전체를 주고 1대1 심층대화를 진행했다. 대기업 입사를 위한 심층면접 방식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이런 방식을 택한 데에는 김윤석이 가진 가치관이 작용했다. 1990년대 극단에서 연출가로 활동한 그는 특히 극단 학전에서 활동할 당시 매년 세 차례씩 이뤄지는 대규모 오디션의 심사를 주로 봤다고 돌아봤다. 때마다 100명이 훌쩍 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연기는 물론 춤과 노래까지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김윤석은 "실력 있는 지원자가 오디션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를 슬하게 보

면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서투러도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혹독한 과정을 통과한 김혜준과 박세진은 제작진은 물론 관객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활약을 펼쳤다. 각기 아빠와 엄마의 외도를 목격한 고등학교 2학년 동급생인 주리와 윤아 역을 맡은 김혜준과 박세진은 함께 호흡한 선배 영접아, 김소진에 견주되 결코 뒤지지 않는 연기로 극을 채워나갔다.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의 시선도 키운다. 김혜준은 한양대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면서 기본기를 다졌다. 먼저 선보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서 어린 중전 역을 맡아 드러낸 어색한 연기 탓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미성년'을 통해 우려를 기대로 돌려놓았다. 동국대 연극 전공의 박세진은 2013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 최연소 진출자로 이름을 먼저 알린 뒤 '미성년'으로 개성 강한 신예의 등장을 알리고 있다.

이해리 기자 gd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마약혐의 배우 양모씨” 2차 피해 우려

단역배우 양 모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애꿎은 배우들이 피해를 입었다. 12일 한 보도채널이 “영화배우 양 모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한 뒤 양동근 등 기성 배우들이 거론됐다. 이에 양동근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세계적 음악축제서 극찬 받은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세계 최대 음악축제 무대 블랙핑크에 섰다. 이들은 12일(현지 시간) 오후 8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사하라 무대에서 공연했다. 이에 빌보드, 버라이어티, LA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관객들이 블랙핑크에게 적극적인 찬사를 보냈다”며 호평했다.

규현 5월 소집해제...완전체 '슈주' 뜬다

그림 슈퍼주니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규현의 5월 소집해제 이후 올해 하반기 완전체로 컴백한다. 슈퍼주니어의 유닛 D&E(동해&은혁)는 1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서울올림픽공원 뮤직라이브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세 번째 미니앨범 'DANGER' 발표 및 단독 콘서트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를 잘해 하반기에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개그맨 이용진 7년 사귀 연인과 결혼

개그맨 이용진이 7년 동안 교제해온 연인과 14일 결혼했다. 이날 이용진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올린 비공개 예식에는 남희석, 양세형, 이용진 남창희 등 개그맨과 방송인들이 대거 하객으로 참석했다. 이용진은 지난해 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연애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용진은 2003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해왔다.

이솜·성유빈 들꽃영화상 주연상

배우 이솜과 성유빈이 올해 들꽃영화상 주연상의 주인공이 됐다. 제작비 10억 원 미만 저예산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매년 4월 진행되는 들꽃영화상의 제6회 시상식이 12일 열린 가운데 ‘소공녀’의 이솜, ‘살아남은 아이’의 성유빈이 주연상을 차지했다. 대상은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이 받았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편집 | 인도영·김형조 기자

‘구해줘 홈즈’ 2030 취향저격

젊은 세대에 맞는 부동산 정보 제공 일요일 밤 편성 불구 시청률 5.8% “법적인 부분들도 짚어줘야” 지적도



MBC '구해줘 홈즈'

‘부동산 예능’을 표방한 MBC ‘구해줘 홈즈’가 20·30세대 시청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여러 매물을 살펴보는 콘셉트에 신선하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도 “젊은 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며 호평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한 ‘구해줘 홈즈’는 방송인 김숙, 박나래 등 연예인들이 시청자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다니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은 “다른 동네의 전월세 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었다”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연출자 이윤화 PD의 “집 찾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선사하겠다”는 기획의도가 빛을 발한 셈이다. 덕분에 ‘구해줘 홈즈’는 일요일 밤 10시대 편성됐음에도 2회 만에 5.8%(7일, 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돌파하며 향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호평하고 있다. 20·30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보를 담은 책 ‘토익보다 부동산’의 이송주 작가는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작가는 “시중 부동산 정보는 중장년층 투자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정보 선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매물이 프로그램에 등장해 현실성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작가는 앞서 나온 서울 고척동 구옥거리와 시흥동, 인천 부평 급행 역세권 등 매물에 대해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일반 시청자도 충분히 느낄 만한 집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관이나 기본적인 입주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근저당권 설정, 향후 계약 연장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부분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줄 전문가 패널이 합류하면 재미와 정보 모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열혈사제’ ‘조장풍’ 한방의 비결

어렵지 않은 스토리·코믹 액션 부조리 응징 통쾌한 대리만족



SBS '열혈사제'

“통쾌한 한 방!”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를 필두로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조장풍)’ 등이 통쾌한 매력으로 시선몰이 중이다. 시청자는 단순하지만 과감한 전개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열혈사제’ ‘국민 여러분!’ ‘조장풍’의 주인공은 사제, 사기꾼, 특별근로감독관으로 저마다 배경도, 직업도 다르다. 하지만 이들이 각종 부정부패를 일삼는 기득권층에 반격을 날리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폭 답아 있다.

‘열혈사제’의 김남길은 정치권과 조직폭력배가 손잡은 카르텔에 칼을 겨눈다. 어쩌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국민 여러분!’의 최시원은 사기꾼다운 말발로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날린다. ‘조장풍’의 김동욱은 “아빠가 창피해”라는 딸의 한 마디에 무사안일주의를 버리고 옛 제자가 당한 부당하고 사건에 뛰어든다.

세 드라마는 거침없는 이야기 전개 속에 시원한 코믹과 액션을 채웠다. tvN ‘시그널’, SBS ‘피고인’ ‘갯속말’ 등 어려운 내용의 장르물이 대세를 이룬 이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통쾌함”에 꽂힌 연출 덕분

이다. ‘열혈사제’ 이명우 PD는 “오락물 같은 드라마”를, ‘국민 여러분!’의 김정현 PD와 ‘조장풍’ 박원국 PD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만화 같은 히어로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청자도 반가워하고 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드라마도 어려워야 하느냐”며 응원하는 시청자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시청률 성적도 대체로 좋다. ‘열혈사제’는 19.8%(5일, 이하 닐슨코리아), ‘국민 여러분!’은 8.4%(2일)를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조장풍’은 8일 4%의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다.

최근 잇단 기득권층의 ‘갑질’과 일탈 사건에 염증을 느낀 대중의 심리가 투영된 결과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향한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답답함을 판타지로 깨우고 대리만족을 선사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콘텐츠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단순한 희화화는 또 다른 사회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대작 ‘아스달 연대기’ 내부 잡음 왜?

장동건·송중기 주연 400억 대작 불구 스텝들, 열악한 환경에 불만 폭발

배우 장동건·송중기 주연의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가 대작답지 않은 스텝 처우 체계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장기 노동의 강행군 스케줄 등 스텝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술팀 소속 한 스텝이 13일 밤 “아직 바뀌지 않은 기술을 상납하는 철저한 상하 관계인 듯 보이는 현실”이라며 “밥 굶고, 잠 못 자는 건 일상”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이 14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일부 스텝의 부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촬영장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또 다른 스텝은 “1일 25시간, 브루나이 해외 촬영 때에는 최장 7일간

15시간30분 휴일 없는 연속 근로에 강제 투입됐다”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두 단체는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해당 스텝은 “터져나올 문제가 결국 터져나왔다”면서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뒤 “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아스달 연대기’는 제작비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또 모든 촬영을 원로해 방송하는 사전제작 드

라마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한 달 준비 끝에 9월 촬영에 돌입했지만 6월 방송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도 여전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초로 상고시대를 다뤄 시각 효과를 위한 컴퓨터그래픽 등 후반작업에도 공을 들여야 해 스텝의 고된 노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작사 관계자는 “주 68시간 제 가이드라인 안에서 스텝의 고충을 최대한 들으며 조율 중”이라며 “다만 특별 업무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백승미 기자 bsm@donga.com